

지친 청년, 멈춘 구직...광주 10명 중 1명 ‘번아웃’

19~34세 청년 삶 실태조사... ‘그냥 쉬’ 광주 10.3%·전남 22.1%

광주 청년 절반 ‘깡겨루족’ ...혼자 식사 늘고 고위험 음주를 높아

광주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학업·입시 경쟁에 내몰리면서 10명 중 1명꼴로는 ‘번아웃’ (지친 상태)을 겪었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답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심리적·생리적으로 지친 ‘번아웃’ (Burnout)을 겪은 비율은 광주 12.7%·전남 30.2%에 달했다.

이를 경험한 이유는 ‘항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광주(50.7%), 전남(38.7%) 모두 가장 많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너무 과중해서’ (광주 18.5%·전남 16.6%),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 (광주 13.4%·전남 13.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청년의 무력감은 이들의 자립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미취업한 청년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 경험을 하지 않은 비율은 광주 89.5%·전남 90.2%로, 전국 평균(86.0%)을 넘겼다. 미취업 청년의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를 물었더니 광주 10.3%·전남 22.1%는 아무 이유 없이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광주(24.3%), 전남(21.6%)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광주 14.7%·전남 11.0%)가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 청년의 절반 이상(55.0%)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광주와 전남(57.0%) 모두 전국 평균 동거 비율(54.4%)을 웃돌았다. 이들에게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묻자 ‘없다’는 답변이 광주 77.4%·전남 62.3%으로 많았다. 광주 청년의 독립 계획이 없는 비율은 전국 평균(62.0%)을 크게 웃돌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청년의 건강한 식습관과 유대 관계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다. 광주 청년 남성은 건강을 해치는 고위험 음주 부문에서 심각한 지표를 보였다. 청년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최근 1년간 주 2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 7잔 이상)은 12.5%로, 전국 평균(11.0%)을 웃돌았고,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14.6%)도 평균(12.7%)을 상회했다.

최근 1달 동안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지 물었더니 5명 중 1명꼴(광주 18.3%·전남 18.2%)은 ‘혼자 식사’를 했다고 답했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광주는 76.8%로, 전국 평균(72.1%)을 웃돌았다. 전남은 69.0%가 갈등이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꼴(광주 30.2%·전남 41.2%)로는 앞으로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52.4%·전남 49.3%는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답했고, ‘하층’이나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광주 34.4%·전남 45.0%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일자리 정책’ (광주 47.8%·전남 38.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주거 정책’ (광주 30.7%·전남 34.5%)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세먼지’에 둘러싸인 광주도심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시작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도심이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뿌옇게 보인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립수목원, 공립수목원 등록...도심 속 ‘생태 힐링’ 거점 우뚝

24만6948㎡ 부지에 식물 1000여종 보유...17년 만에 결실

광주시 남구 도동길에 자리한 광주시립수목원이 마침내 정식 공립수목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8년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첫발을 댄 지 17년 만에 거둔 결실로, 광주시는 체계적인 수목 관리와 연구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생태 휴식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광주시립수목원에 대한 공립수목원 등록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등록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총 24만6948㎡(약 25ha) 규모로, 공립수목원 등록 필수 요건인 10ha를 훌쩍 넘는다.

보유 식물 또한 교목과 관목, 초본식물류를 합쳐 총 1047종에 달해 등록 기준인 1000종 이상을 충족시켰다.

수목원 내부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4410㎡ 규모의 전시온실을 비롯해 한국정원, 1만2140㎡에 이르는 생태관찰로 등이 조성돼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또한 전문적인 수목 관리를 위한 묘포장과 증식 온실, 연구실, 종자저장고 등 연구·보존 시설도 탄탄하게 갖췄다.

그동안 광주시립수목원은 2017년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23년 10월부터 시민들에게 문을 열고 운영해왔다.

이번 정식 등록을 통해 수목원은 단순한 공원 기

능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림 유전 자원의 수집, 증식, 보존,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시는 이번 등록이 광주시의 녹지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 자원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 관리인이 상주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산림 복지 서비스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번 등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 기관에 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공립수목원으로 거듭난 만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휴식 공간이자 생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시, 그린벨트 주민 삶의 질 높인다...국비 33억 확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33억원을 확보해 도로 확장과 여가 공간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엄격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아온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총 33억원 규모로, 3개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동구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가장 많은 20억원이 배정됐으며, 북구 녹색이음 누리길 조성에 7억원, 남구 임정마을에서 포충사를 잇는 도로 확장 공사에 6억원이 각각 쓰인다.

시는 비좁은 도로 등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고 정주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금화 시도시공간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KTX·SRT 통합에 전라선 또 소외” 개선 촉구

김진남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전남도의회가 KTX와 SRT의 통합과 관련, 전라선 소외를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진남(민주·순천5) 의원이 대표발의한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 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진남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KTX와 SRT 통합을 추진하며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광주·목포를 잇는 호남선은 4684석이 증가한 반면, 전라선은 고작 191석 증가에 그쳤다”며 “전라선이 또다시 철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호남권이고, 같은 고속철도 통



합임에도 좌석 증가 규모가 무려 24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는 전라선을 이용하는 순천·여수·광양 등 호남 동부권이 철도 정책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라선도 호남선과 마찬가지로 주말의 경우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라선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철도 노선이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상황에서 전라선 접근성 강화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 ① (12kg + 한약재)
-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외로 297-52